

해외 인도인 공동체 내의 ‘달리뜨(Dalit)’ 카스트에 대한 차별:

시크 디아스포라(Sikh Diaspora) 사례를 중심으로*

김경학**

| 목 차 |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라비다시아 달리뜨의 시크교 전 |
| II. 시크사회 내부의 카스트 분화와
해외 이주 | 통의 문화적 전유와 독자적 정
체성 추구 |
| III. 해외 시크사회의 형성 과정과
카스트 정체성의 부각 | V. 맺음말 |

| 논문요약 |

독립 이후 인도 정부는 카스트로 인한 불평등과 착취를 금하기 위해 달리뜨(Dalit)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안을 만들었으나 달리뜨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핍박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힌두 공동체뿐만 아니라 시크 공동체에서도 유지되고 있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시크 공동체 내에서도 이러한 차별행위는 여전히 진행된다. 이 글은 해외로 이주한 시크 공동체가 이주 정착지에서 공동체가 공고하게 됨에 따라 등장하는 카스트에 따른 분화, 특히 달리뜨 시크에 대한 차별의 등장 과정과 차별 사례들을 검토하고, 지배 집단의 차별에 따른 라비다시아 달리뜨의 대응방식을 살펴본 후, 소위 ‘2009년 비엔나 사건(Vienna Incident)’ 이후 지배적 시크 집단인 자뜨(Jat) 시크의 차별에 대한 라비다시아 달리뜨의 대응방식에서 드러나는 이들의 선명한 정체성 구성 과정을 규명하고 있다. 라비다시아 달리뜨가 시크교가 아닌 ‘라비다시아교(Ravidassia Dharm)’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인도 편잡 내 라비다시아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6A3A02079749).

** 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 교수

달리뜨 종교조직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받은 해외 구루 라비다스 사원들도 주류 시크교와 ‘거리두기’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주제어: 시크 디아스포라, 카스트 차별, 달리뜨, 라비다시아, 구루 라비다스 사원 자뜨 시크

I. 들어가는 말

독립 이후 인도 정부는 카스트로 인한 불평등과 착취를 금하기 위해 불가촉천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제정에도 불구하고 인도 전반에 걸쳐 불가촉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이들에 대한 신체안전의 위협 및 살해 등 다양한 형태의 핍박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달리뜨(Dalit)¹⁾에 대한 차별은 힌두 공동체 외에도 힌두에서 개종한 시크 공동체(Sikh communities)에서도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은 인도 국내를 넘어 해외에 거주하는 시크 공동체 등 인도인 공동체 전반에서 달리뜨에 대해 진행된다.

사실 시크교(Sikhism)는 힌두 카스트의 위계질서를 부정하고 태동한 종교이다. 그러나 시크교로 개종한 달리뜨 시크(Dalit Sikhs)는 힌두교에서 시크교로 개종 때부터 현재까지 시크 집단의 주류 집단인 자뜨 시크(Jat Sikhs)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 힌두 사회에서는 브라만이 위계질서상 가장 높은 지위를 누리지만, 시크사회에서는 자뜨 시크가 세력이 가장 강한 집단으로 인정되고 있다(Grewal 1990). 자뜨 시크 다음으로 카트리 시크(Khatri Sikhs), 아로라 시크(Arora Sikhs) 등 상업에 종사하는 시크들

1) 달리뜨(dalit)는 영어로 ‘the oppressed’로 번역될 수 있는데 ‘핍박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1970년대 이후 불가촉천민(untouchable) 해방 운동 등 ‘카스트 철폐 운동(anti-caste movement)’을 전개하는 집단은 기존 용어들, 예컨대 인도 정부의 공식명칭인 ‘지정 카스트(scheduled caste)’와 마하뜨마 간디가 사용한 ‘신의 아들’이란 의미의 ‘하리잔(Harijan)’이란 용어보다 달리뜨를 더 선호한다. 오늘날 달리뜨란 용어는 주변화되어 착취당하는 자에 대해 일반화시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 위계상 뒤를 잇고, 그 뒤를 목수와 대장장이 등 기능직 집단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람가리아 시크(Ramgharia Sikhs)가 따른다. 달리뜨 시크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위계질서상 가장 최하위에 처해 있다.

자뜨 시크와 달리뜨 시크 간에 음식을 함께 먹는 일에 시크교의 이념에 따르면 더이상 철저한 부정(pollution)의 관념이 적용되지 않아야 하나, 식사 등 많은 영역에서 아직도 달리뜨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자뜨 시크는 많지 않다. 시크가 되는 길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시크들이 인도 내 모든 곳에서 목격되지만, 가장 많은 시크가 거주하는 인도 내 지역은 북서부에 위치한 펀잡(Punjab)이다. 시크교 역사 초기부터 부정한 힌두 카스트 출신 예컨대 가죽 일에 종사하는 짜마르(Chamar)와 청소 일을 하는 방기(Bangi) 등의 불가촉천민 출신 시크들은 다른 시크들과 평등한 지위를 누리지 못했다. 따라서 불가촉천민 출신 시크들은 실제로 시크 사원인 구르드와라(gurdwara) 출입이 제한되거나 허용되더라도 사원 내부에서 일정 행위는 허용되지 않았다.

인도 국내에서 달리뜨 시크에게 구르드와라의 출입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사원 내에서의 달리뜨의 행동에는 많은 규제가 따른다. 특히 사원 공동 식당인 '랑가르(langar)'에서 음식 준비와 배식 등 자원 봉사를 하고자 하는 달리뜨의 기회는 철저히 박탈되었다. 시크교는 태동할 때부터 카스트의 위계질서에 관계없이 하나의 동일한 주방에서 만들어진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인 공동 식당 '랑가르'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시크교와 관련된 공식적 지위들, 예컨대 개별 사원의 집행위원회나 시크교 중앙행정기구인 '구르드와라 중앙운영위원회(Shromani Gurdwara Parbandhak Committee)' 등의 주요 직책은 예외 없이 자뜨 시크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

1950-1970년대에 영국과 캐나다 등으로 국제이주를 하였던 달리뜨 시크들은 해외 정착지에서도 카스트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이에 독자적인 사회·종교 조직을 만드는 등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시크 집단 내에서도 기존에 다니던 시크 사원에서 자뜨 시크들로부터 다양한 카스트 차별을 경험한 달리뜨 출신 라비다시아(Ravidassia) 시크 디아스포라는 '구루 라비다스(Shri Guru Ravidass)'의 이름을 따른 '구르드와라',

‘템플(Temple)’, ‘사바(Sabha)’, ‘바완(Bhawan)’ 등을 붙인 종교 조직을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 글은 해외로 국제 이주한 시크 공동체가 이주 정착지에서 공동체가 점차 공고하게 됨에 따라 등장하는 카스트에 따른 분화, 특히 달리뜨 시크에 대한 차별의 등장 과정과 차별 사례들을 검토하고, 지배집단의 차별에 따른 달리뜨 시크들의 대응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소위 ‘2009년 비엔나 사건(Vienna Incident)’²⁾ 이후 자뜨 시크 차별에 대응하는 라비다시아 달리뜨의 일련의 종교·사회적인 선언과 조치들이 이들의 선명한 정체성 구성에 개입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들은 시크 디아스포라를 다룬 기존 논문과 단행본 등을 참고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뷰 등 구체적인 현지자료들은 연구자가 2006-2007년에 걸쳐 한 달씩 두 번 캐나다 밴쿠버일대 시크를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와 2009-2010년에 걸친 캐나다 몬트리올의 시크 사원들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수집된 것들이다. 연구자는 캐나다 밴쿠버와 몬트리올 소재 인도 편집 출신 달리뜨, 특별히 라비다시아(Ravidassia) 종교조직인 ‘쉬리 구루 라비다스(Sri Guru Ravidass)’의 이름을 딴 다양한 종교기관뿐만 아니라 자뜨 시크가 중심이 된 캐나다 주류 시크 사원들을 방문해 해당 사원 관련자와의 인터뷰 및 의례에 대한 참여관찰을 수행한 바 있다.

II. 시크사회 내부의 카스트 분화와 해외 이주

시크교 창시자인 구루 나낙(Guru Nanak, 1469-1539년)은 힌두교의 의례주의와 카스트제도를 비판하고, 시크 공동체 내부에서 위계질서에 따른

2) 2009년 5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달리뜨 시크인 라비다시아(Ravidassia)의 사원인 ‘쉬리 구루 라비다스 구르드와라(Shri Guru Ravidass Gurdwara)’에 총기 등으로 무장한 무리들이 인도에서 온 달리뜨 라비다시아 종교지도자를 살해한 사건을 말한다. 라비다시아 종교지도자 ‘산뜨 라마 난드(Sant Rama Nand)’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의 지도자를 포함 15명의 신자가 중경상을 입은 사건으로서 라비다시아 집단은 이 사건 배후를 강성 자뜨 시크 집단으로 지목하였다.

카스트 단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힌두와 달리 모든 시크는 평등한 관계에서 일상생활과 의례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카스트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작동하는 영역, 다시 말해 카스트에 따른 혼인과 식사 관계 등의 영역에서 개종 이전 힌두 카스트에 따른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카스트의 힌두가 시크교로 개종한 이후에도 자신의 정체성은 여전히 힌두 카스트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편잡 내 시크 인구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의 70-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크 인구 가운데 자뜨(Jat) 시크는 전체 시크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 집단으로서 편잡 지역 농지의 약 80% 이상을 소유한 '지배적' 집단이다(Ram 2012). 자뜨 시크는 힌두 카스트 위계상으로는 슈드라(Shudra)³⁾에 속하지만 편잡 내에서는 의례적으로나 세속적으로 절대적인 상위 지배 집단이다. 전통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면서 상업에 종사했던 대표적인 시크 집단에는 카트리 시크와 아로라 시크가 있다. 두 카스트가 시크 전체 인구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2.5%이지만 이들의 생활수준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힌두 카스트 가운데 주로 목수와 대장장이처럼 기능공 출신 카스트가 시크교로 개종한 집단을 총칭해 람가리아 시크라 부른다. 이들은 지난날 농지를 소유한 자뜨 시크 농부를 고객으로 삼아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를 제작·수리해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곡물이나 현금으로 수령했던 사람들이다. 20세기 초반 무렵부터 상당수의 람가리아 시크는 전통적인 기능공 일을 버리고 해외에 이주·정착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이주 사례는 20세기 초 동아프리카의 우간다와 케냐 등으로 계약노동자 신분으로 집단 이주한 기능공 람가리아 시크들이었다. 동아프리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970년대 초반에 아프리카 현지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였던 람가리아 시크들은 케냐와 우간다 원주민의 민족주의 경제 정책으로 상당수가 영국과 캐나다 등으로 재이주(twice migration)를 하였다.

시크 달리뜨는 힌두 달리뜨처럼 일상생활에서 상위 카스트 출신 시크들로

3) 슈드라는 힌두 카스트의 주요 범주 4개, 즉 브라만, 꼬샤뜨리아, 바이샤, 슈드라 가운데 가장 낮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4개의 범주로 힌두 인구를 구분하는 소위 '바르나 체계(varna system)'는 인도 인구 약 16%를 차지하는 달리뜨 집단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부터 차별을 받아 왔다. 청소 일을 하는 힌두 방기는 마자비 시크(Mazhabi Sikhs)가 되었고, 죽은 가축을 치우고 가축 무두질을 했던 힌두 짜마르는 라비다시아 시크가 되었다. 이들은 시크교로 개종 후 이름만 변경되었을 뿐 수행하는 일은 힌두 달리뜨와 거의 유사하다. 시크가 지배적인 마을에서 거의 모든 달리뜨 시크는 마을 어귀에 살거나 외곽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신들만 사용하는 별도의 우물과 화장터를 갖고 있다. 자신들이 모시는 자뜨 시크 지주 집의 출입이 제한되기도 하며, 특히 부엌처럼 신성하게 여기는 곳의 출입은 금지된다(김경학 2008, 51-54).

편잡 주 인구의 약 29%를 차지하는 달리뜨 시크는 편잡 전체 토지의 3%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가난한 집단으로 물질적으로는 자뜨 시크에 비교해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달리뜨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편잡 내 도압(doab)⁴⁾ 지역 농촌에는 전체 인구의 약 50%가 달리뜨 시크들이다(Ram 2012; Singh 2012). 달리뜨 시크 가운데 라비다시아 시크는 라비다시아 출신 성자인 구루 라비다스(Guru Ravidass)의 이름을 따라 자신들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구루 라비다스는 시크 구루들과 유사한 시기에 활동한 성자로서 그의 40개에 이르는 찬송은 시크교의 영원한 구루이자 성경에 해당하는 ‘구루 그란티 사힙(Guru Granthi Sahib)’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을 근거로 라비다시아 달리뜨들은 라비다스를 열명의 시크 구루의 반열에 준하는 숭배를 하고 있으며 자뜨 시크들에게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⁵⁾

시크의 해외 이주는 영국제국주의 시대에 시크연대 소속 시크들의 해외 복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시크연대 소속 시크들은 극동지역, 유럽, 아프리카 등 영국군이 주둔해 있던 지역에 복무하기 위해 해외에 진출했으며, 이들은 복무를 마친 후 현지의 경찰과 경호 분야에 취업되어 정착

4) 편잡 지역은 주요 강을 중심으로 구분되어 불리는데 서틀레즈(Sutlej) 강 이남을 말와(Malwa)로, 서틀레즈 강과 비스(Beas) 강 사이를 도압으로, 도압 지역 북쪽부터 파키스탄을 향하는 위쪽을 마자(Majha)로 부른다. 도압 지역은 편잡 내 중부지대에 속하는데, 해외 시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시크는 잘란다르(Jalandar) 군, 호시아르뿌르(Hoshiarpur) 군, 루디아나(Ludhiana) 군이 속한 도압지역 출신이다.

5) 연구자가 인도 편잡의 도압 지역과 캐나다의 밴쿠버와 몬트리올 라비다스 시크 사원에서 라비다시아들이 예외 없이 예배당 내 ‘구루 그란티 사힙’ 옆에 구루 라비다스 사진을 배치해 놓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하였다. 영국 식민지기에 이루어진 계약노동제(indentured labour system)에 따른 사탕수수 등의 플랜테이션 노동자로 피지(Fiji) 등으로의 이주대열에 소수의 시크가 포함되었다.⁶⁾ 특히 1886-1902년 사이에 영국령 식민지역인 동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 사이를 연결하는 철도공사를 위해 편잡의 람가리아 시크가 동아프리카로 이주를 하였다(Tatla 2004). 또한 1901년 이후 일부 시크들이 북미의 서부지역으로 이주를 감행했는데, 이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일대에 농업노동자로 취업하거나 태평양철도(the Pacific Railways) 부설 공사장과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제재소에 필요한 노동력으로 취업하여 북미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다(Leonard 199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크를 포함한 인도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주한 대상국은 영국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후 복구사업과 산업분야에 단순 노동력의 수요가 급증하자 당시 이주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시크들이 영국으로 대거 이주하였다.⁷⁾ 1965년 영국정부의 취업허가(work permit) 제도가 도입하기 이전에 영국에 정착해 있던 시크들은 본국의 가족과 친족원을 대대적으로 이주시켰다. 특히 1970년대부터 영국으로의 이주가 어려워지고 이 무렵 캐나다와 미국의 아시아 인구에 대한 이민 규제가 완화되자, 편잡 출신 시크들의 이주 대상국이 캐나다와 미국으로 변화되었다. 편잡 출신 가운데 영국과 북미로 이주한 대부분의 시크들은 자프 시크였으며, 전체 이주자의 약 10% 정도에 해당했던 달리뜨 이주자들은 도입 지역의 라비다시아 시크로 짐작된다. 1970년대 후반부터 중동국가들의 건설업 분야에 단순 노동력의 수요가 급증하자 서구로 이주할 막대한 이주비용을 준비할 수 없었던 소농 또는 달리뜨 시크들은 이주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동국가로 대대적으로 이주하였다(Tatla 2014).

-
- 6) 인도 독립 이전에 계약노동제로 국제 이주했던 인도인의 약 20-40%가 불가촉천민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Kumar 2004), 이들 계약노동자 중에는 자신의 종교를 시크교라 주장하는 달리뜨도 포함되어 있었다. 인도 독립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국제이주 비용을 본인이 감당해야 했던 자발적 이주의 경우 경제력이 약한 달리뜨의 해외 이주자 규모는 전체 인도인 이주의 약 10%에 해당했을 것으로 기존 연구들이 추정한다(Kessinger 1974; McLeod 1989).
- 7) 타틀라(Tatla 2004)에 따르면 1947년 독립 이후 약 20년 동안 약 30만 명의 인도인이 영국으로 이주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농지를 저당 잡아 이주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던 부유한 자프 출신 시크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80년대 들어서 편잡 내 시크 국가를 건립하기 위한 ‘칼리스탄 운동(Khalistan movement)’이 시작되고, 1984년 인도 정부의 시크교 성지인 ‘황금사원’에 대한 침탈, 이후 이어진 ‘텔리시크 대학살’ 사건 이후 약 10년 동안 인도 정부군과 시크 무장투쟁세력 간의 게릴라 전투가 편잡 내에서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급진파 시크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로의 정치적 이주자가 발생하였다. 주로 독일과 스위스 및 프랑스 등에 난민 자격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일부 시크들이 이들 국가에서 소규모 시크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시크를 포함한 인도인의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들로의 이주가 2000년대 이후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해당 국가의 비전문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의 비영어권 유럽 국가들로의 시크 이주가 진행되면서 2009년 현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⁸⁾ 등에 약 5,000-10,000명의 시크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Jacobsen & Myrvold 2011).

영국제국주의 시대에 계약노동자로 피지 등의 남태평양 일대, 카리브 해 일대 및 동아프리카로 이주한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힌두, 시크, 무슬림 등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지녔으며, 시크 이주자의 대부분은 자뜨와 람가리아 시크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크의 인구가 지배적인 편잡 주 내에 달리뜨 시크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압 지역에는 1920년대 가족으로 구두를 만들거나 수선하였던 짜마르 출신 달리뜨 라비다시아 시크가 중심이 된 ‘아드 다르미 운동(Ad Dharmi Movement)’이 일어났다. 이 운동의 영향으로 라비다시아 달리뜨의 국제이주도 시작되었다. ‘아드 다르미 운동’은 도압 지역의 잘란다르 일대에 주둔했던 영국군병영의 군부대의 군화제작에 필요한 가죽장사로 부를 축적한 라비다시아 달리뜨였던 ‘바부 만구 람(Babu Mangoo Ram)’을 중심으로 라비다시아 달리뜨들은 불가촉성의 타과를 외치는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당시 달리뜨 시크 가운데 가죽 장사로 부를 축적한 일부 달리뜨들이 영국과 북미 등으로 국제이주를 할 수 있게 한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아드 다르미 운동’의 주요 목표는 달리뜨 시크의 독자적인 예배 공간을 확보하여 독자적인 사회·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8) 룬(Lum 2010, 34)의 연구에 따르면 2009년 스페인의 카탈로니아(Catalonia) 주에 만 약 1만 명 이상의 시크가 있으며, 이들 가운데 자뜨 시크가 다수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당시 만구 람은 달리뜨의 정신에 자부심을 심어주고자 하는 이 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다(Singh 2016, 356-359).

해외 시크 집단의 대다수는 자뜨 출신이지만 전체 시크 이주자의 약 10%는 달리뜨 시크였으며, 달리뜨 시크 이주자 가운데 약 60-70%는 라비다시아 달리뜨로 추정된다(Kumar 2004). 국제이주에 필요한 재원 동원성이 가능한 부유했던 자뜨 시크 출신 이민자가 대부분인 해외 이주 상황에서 국제이주에 필요한 재원 동원이 가능한 소수의 달리뜨만이 국제이주를 하였기 때문에 인도인의 국제이주 관련한 기존 연구들 가운데 달리뜨 출신 인도인을 본격 다룬 연구는 흔치 않았다. 인도인의 국제이주 연구에서 달리뜨 카스트의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인도 국내에서의 달리뜨에 대한 카스트 차별이 해외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부터이다.

Ⅲ. 해외 시크사회의 형성 과정과 카스트 정체성의 부각

1. 해외 시크의 정착 과정과 종교 공간에서의 달리뜨 시크에 대한 차별

시크가 다수인 해외 정착지에 세워진 시크 사원인 구르드와라에는 시크 외에도 힌두, 심지어 무슬림까지 참여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예컨대 인도인의 캐나다 서부로의 국제이주는 시크 집단이 주도하여 밴쿠버에서 시작되었는데, 1908년에 세워진 밴쿠버의 최초의 시크 사원인 '칼사 디완 소사이티(Khalsa Diwan Society)'에는 시크 외에도 힌두와 무슬림도 참여하였다. 인도인 공동체 규모가 커지면서 점차 종교에 따른 분화가 발생해 구르드와라에는 시크들만 남게 된다. 더 나아가 시크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간 출신 카스트에 구애 받지 않았던 시크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카스트는 시크 사원에서의 종교생활에 주요 변수로 등장하였다.

캐나다, 영국, 미국 등 시크 이주자 규모가 큰 국가들에서 지배적 집단

인 자뜨 시크들이 해외에 설립된 시크 사원 운영위원회 대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원 운영 전반에 걸쳐 자뜨 시크의 영향력이 매우 크지만, 이주 초기에는 개인적이나 집단적으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시크 사원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카스트를 토대로 하는 특별한 차별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 인도에서 농지 소유 집단이던 자뜨 시크나 무토지 노동자 집단이던 달리뜨 시크 모두 낯선 국가에서 초기에는 단순기술자로 육체노동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시크 공동체가 공고화되기 이전에는 달리뜨 시크도 특별한 불이익이나 차별 없이 구르드와라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민의 역사가 깊어지고 시크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특정 카스트, 대표적으로는 자뜨 카스트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고 그간 불문에 붙였던 카스트 정체성이 시크 사회에 중요 변수로 떠올라 다양한 방식으로 달리뜨 시크에 대한 차별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해외 시크의 대부분은 편잡 지방 출신이며 더 세밀하게는 편잡 내 도암 지역 출신이 대다수이다. 이 때문에 도암 출신 시크들은 처음 만난 시크 일지라도 몇 단계의 네트워크 고리를 추적하면 상대의 출신 카스트 성분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달리뜨 출신 시크의 신분도 이런 식으로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Nesbitt 1995). 시크 사원 내에서 카스트 신분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시크 사원 내 공동식당인 ‘랑가르’에서 음식 준비와 배식 및 특히 ‘까라 뿌라사드(karah prasad)’ 봉헌⁹⁾을 위한 달리뜨 시크의 자원 봉사는 허용되지 않았다. 달리뜨 시크의 이런 차별적 경험은 정착 국가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시크 사원에서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모욕적인 경험 이후 달리뜨 시크들은 자신들만의 종교적 공간을 조성한다.

시크 사원 내에서 카스트 차별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시크 디아스포라 형성 초기 단계에는 예배당 내에 시크교의 성경에 해당하는 ‘구루 그란티 사힌(Guru Granthi Sahib)’이 예배당 전면 중앙에 위치하고, 시크교 창시

9) ‘까라 뿌라사드’는 부정(impurity)의 개념으로 위계가 다른 카스트별로 음식을 격리해 먹는 힌두교의 카스트 위계질서를 타파하기 위해 시크교에서 도입한 의례절차이다. 대형 철제 용기인 ‘까라’에 봉헌물인 ‘뿌라사드’를 함께 섞어서 의례 참여자들이 함께 음복하는 것으로서, 이는 모든 시크가 카스트에 관계없이 동등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McLeod 1975).

자인 구루 나낙(Guru Nanak) 사진은 중앙 위치의 벽면에 부착되며 이와 함께 달리뜨 출신인 구루 라비다스(Guru Ravidass)의 사진도 함께 배치되었다. 그러나 이주민의 규모가 커지고 자뜨 시크의 사원 권력이 강화되면서 예배당 내에 달리뜨 출신인 구루 라비다스 사진 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소위 정통 시크(orthodox Sikh)라고 자부하는 자뜨 시크들은 시크교의 구루는 창시자인 구루 나낙부터 10대 구루인 구루 고빈드 싱(Guru Gobind Singh)까지 열 명의 구루뿐이며, 달리뜨 출신인 라비다스는 '구루'가 아닌 '성자(bhagat)'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해외 대부분의 시크 사원에 자뜨 시크의 세력이 강화되면서 그간 문제되지 않았던 달리뜨 출신 라비다스 사진은 주류 시크 출신 열 명의 구루들과 동일한 반열에 위치할 수 없다는 논리로 예배당에서 축출되었다.

그러나 달리뜨 시크들은 성경 '구루 그란티 사힙' 내에는 달리뜨 출신인 구루 라비다스의 40개의 찬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¹⁰⁾ 열 명의 구루들과 동등하게 시크 구루로서 숭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달리뜨 시크들은 구루 라비다스의 탄생일처럼 특별한 날에는 구루 라비다스를 기념하는 특별한 말씀이 예배당 내에서 찬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자뜨 시크들이 중심이 된 사원의 운영위원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시크 이주의 역사가 오래된 모든 해외 지역에서 이런 차별은 늘 발생하였으며, 이 때문에 달리뜨 시크 특히 라비다시아 달리뜨 시크들은 자신들만의 독자적 예배당을 건립하였다. 심지어 시크 이주자가 2000년대 들어서야 형성되기 시작한 비영어권 유럽 국가들, 예컨대 스페인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진 바 있으며 결국 라비다시아만의 별도의 사원이 세워졌다(Lum 2010). 종교적으로 라비다시아 달리뜨 시크가 모욕을 당하는 등 거듭되는 종교적 차별은 이들로 하여금 그들만의 별도의 예배장소를 만들게 하여, 중국에는 '구루 라비다스' 이름으로 센터, 사바(Sabha: 모임), 템플, 바완(Bhawan: 건축 공간) 등의 명칭을 붙인 별도의 사원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시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¹¹⁾

10) 구루 그란티 사힙 내에는 열 명의 구루 말씀뿐만 아니라 라비다시아와 까비르(Kabir)처럼 불가촉천민 출신 성인들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 힌두교 내에서 라비다시아는 주로 죽은 짐승을 처리하고 가축 일에 종사했던 짜마르 출신이고 까비르는 주로 직조 일을 했던 줄라하(Julaha)에 속한다(Grewal 1972).

2. 달리뜨 독자 노선 추구와 카스트 차별의 지속: 캐나다와 영국 사례

시크의 해외 이주 역사와 이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주류 시크 집단인 자뜨 시크의 달리뜨 시크에 대한 차별행위와 이로 인한 두 집단 간의 갈등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캐나다와 영국의 시크 집단의 상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국의 시크 이주 역사는 영국 제국 주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북미로의 시크 이주 역사는 시크의 캐나다 이주 역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시크 이주민의 규모에서도 약 50만 명의 캐나다와 약 45만 규모의 영국 시크 사회를 검토하는 것은 시크 집단 내의 카스트 차별 경험의 다양성과 달리뜨의 선명한 독자적인 종교적 정체성의 등장 사례를 제시하는 데에 적합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에서 구루 라비다스 이름을 따르는 달리뜨 시크의 독자적인 사원들은 1982년에 밴쿠버에 ‘쉬리 구루 라비다스 사바(Shri Guru Ravidass Sabha)’를 시작으로 토론토, 몬트리올, 캘거리, 에드먼턴 등에도 순차적으로 구루 라비다스 사원들이 등장하였다. 캐나다 시크 이민 초기부터 현재까지 시크 집단의 약 80%는 자뜨에 속하고 나머지 약 20%는 불가촉천민 출신인 라비다시아를 비롯해 기능공인 람가리아 그리고 소수의 카트리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로 시크 이주가 시작된 이래 시크 사원의 헤게모니는 자뜨 시크 손에 있었다. 따라서 캐나다의 주요 사원 내 권력 경쟁은

11) 사실 해외 달리뜨들이 구르드와라에서 카스트 지배집단인 자뜨 시크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독자적인 종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인도 편잡 달리뜨들의 독자적 종교 공간 형성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 편잡 주 대부분 시크 사원의 운영위원회는 자뜨 시크가 지배하고 있으며 달리뜨 시크에 대한 다양한 차별로 인해 달리뜨, 특히 라비다시아들은 ‘데라(dera)’라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예배 공간을 만들었다. 개별 데라에는 자신들만의 종교적 지도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루 라비다스 사진을 중앙에 배치하여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달리뜨 데라들 가운데 숫자가 가장 많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데라들 대부분은 라비다시아 달리뜨 데라들이며, 이들 데라들은 라비다시아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해 왔다. 편잡 전체 약 9천 개의 데라 가운데 가장 세력이 크고 영향력이 있는 데라는 다음에 언급될 잘란다르 군의 발란(Ballan)에 위치한 ‘데라 산뜨 사르완 다스(Dera Sant Sarwan Dass, Ballan, 이하 ‘데라 발란’)이다 (Singh et al. 2012).

당연히 자뜨 시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였다.

1980년대 이래 대부분의 시크 사원에서 달리뜨 시크들은 사원 운영위원회에서 배제되어 왔다. 예배 때마다 헌금을 내고 사원 내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에 참여하였지만, 종교적 봉헌 예컨대 랑가르에서 식사 준비 등에서 달리뜨 시크들은 차별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차별로부터 벗어나고자 라비다시아 달리뜨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달리뜨 시크 사원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구루 라비다스 사원이 세워진 것에 대해 밴쿠버 구루 라비다스 사원의 회장인 빌 바스라(Bill Basra, 남, 44)는 독자적 사원 건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한다.¹²⁾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한 ‘칼사 디완 소사이티’ 등 주요 시크 사원에 다니던 라비다시아들에 대해 자뜨 시크들의 카스트 차별이 노골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라비다시아가 주축이 되어 일찍이 구루 라비다스가 주창한 평등사회 건설 메시지를 생각하며 해외에서의 달리뜨의 인권 향상과 카스트차별 철폐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만의 독자적인 사원을 만들었다.”

캐나다 시크의 카스트 차별의 대표적인 다른 사례는 1994년에 몬트리올(Montreal)에 세워진 ‘쉬리 구루 다비다스 템플 구루바니 사가르(Shri Guru Ravidass Temple Gurubani Sagar, 이하 ‘구루바니 사가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10년 당시 ‘구루바니 사가르’의 라비다시아 달리뜨 사원의 회장이었던 하르바잔 싱(Harbajan Singh, 남, 36)은 편잡 도압 지역 호시아르뿌르 출신으로서 이민 온 14세부터 몬트리올 라살(La Salle)에 위치한 ‘구르드와라 구루 나낙 다르바르(Gurdwara Guru Nanak Darbar, 이하 ‘나낙 다르바르’)를 다녔다. ‘나낙 다르바르’ 사원을 다니던 하르바잔 싱은 사원의 모든 실무와 권력을 쥐고 있는 자뜨 시크들이 자신과 같이 낮은 카스트 출신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차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특히 1984년 이래 편잡 지역에 시크 독립 국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하는 ‘칼리스탄 운동’에 참여했던 급진 성향의 자뜨 출신 시크들이 캐나다로 건너와 몬트

12) 2007년 7월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구루 라비다스 사원 회장 빌 바스라와의 인터뷰 내용.

리올의 ‘나낙 다르바르’ 사원을 장악하면서 사원은 종교적으로 더 보수화 되어 라비다시아를 비정통 시크로 주변화 시키기 시작했다. 급진파 자프 시크들은 라비다시아 달리뜨들이 편잡의 ‘데라’라는 비정통적 종교 공간에서 라비다스 사원을 숭배하고, 특히 데라에 소속된 달리뜨 출신 종교 지도자들을 신격화함으로써 열 명의 시크 구루 외에 더이상 인간 구루를 숭배하지 말라는 시크교 정통성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달리뜨 출신 시크들에게 심한 차별을 가하였다. 이런 차별적 경험을 받은 하르바잔 싱을 비롯한 라비다시아들은 현재의 독자적인 구루 라비다스 사원¹³⁾을 세웠다.¹⁴⁾

한편 2011년 영국 센서스에 따르면 영국 내 약 2백 3십만의 인도인 이주자 가운데 약 18%에 해당하는 4십 2만 3천 명 정도의 시크 인구가 있었다. 대규모 시크의 주요 목적지였던 영국의 시크들은 1950년대 이래 영국의 전후 복구와 산업체에 필요한 단순 노동자로 입국하여 주로 산업도시에 정착하였다. 영국 대부분의 시크는 인도 편잡 출신의 자프 시크에 속했다. 영국 센서스에 시크 인구가 출신 카스트별로 세분해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달리뜨 시크 가운데 라비다시아가 다수집단이라는 것은 일부 기존 연구보고서(Singh et al. 2012)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해당 보고서에 인용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당시 영국의 시크는 33만 6천 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달리뜨 인구는 6-7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달리뜨 가운데 편잡 도입 출신 라비다시아가 4-5만 명으로 추정되어 다른 달리뜨 카스트에 비해 수적으로 월등한 다수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에 정착한 달리뜨들 역시 초기에 다양한 시크 집단들과 함께 사원의 예배에 참여하였지만 점차 자신들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심해지자 독자적인 시크 사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영국에서 자프 시크의 달리뜨에 대한 차별에 대응해 독자적인 사원을 세우고자 하는 시도는 라비다시아 달리뜨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던 울버햄

13) 몬트리올의 구루 라비다스 사원은 라비다시아의 수가 적고 경제력이 약해 1994년에 값싼 폐허 공장건물을 고쳐 한동안 사용하다가, 몬트리올 라비다시아 구성원의 현금과 캐나다 다른 도시의 구루 라비다스 사원뿐만 아니라 영국 등 다른 국가의 라비다스 사원을 순회하여 모은 기금을 이용해 2001년에 현재의 사원을 건축하였다.

14) 2010년 5-6월에 걸쳐 몬트리올 소재 라비다스 사원에서 하르바잔 회장을 비롯한 달리뜨 시크들과 인터뷰 내용.

프톤(Wolverhampton)과 버밍햄(Birmingham) 등이 위치한 영국의 중부지대(Midlands)에서 시작되었다. 2006년 당시 약 5만 명의 라비다시아 인구 가운데 중부지대에만 약 2만 2천 명이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중부지대의 라비다시아 인구 규모는 매우 컸다(Singh et al. 2012, 52). 1968년에 라비다시아 사원인 '쉬리 구루 라비다스 템플(Shri Guru Ravidass Temple)'이 울버햄프톤에 최초로 세워졌다. 당시 독자적인 사원을 추진한 주요 달리뜨들 역시 캐나다에서와 마찬가지로 1920년대 인도 편잡 주 도압 지역의 '아드 다르미 운동'으로 대표되는 달리뜨 운동을 주도한 라비다시아 '만구 램'¹⁵⁾의 정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울버햄프톤의 뒤를 이어 1969년에 버밍햄에 '구루 라비다스 바완(Guru Ravidass Bhawan)'이 운영되는 등 2006년 현재 21개의 사원이 영국 전역에 걸쳐 운영되었고, 2018년 현재는 24개의 구루 라비다스 사원이 운영되고 있다.¹⁶⁾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달리뜨 인권관련 단체의 보고서, 예컨대 '영국 달리뜨 연대네트워크(Dalit Solidarity Network UK, UK DSN)'의 "카스트 차별에 관한 보고서"(2006), '반 카스트 차별연맹(Anti Caste Discrimination Alliance, ACDA)'의 "숨겨진 인종차별: 카스트와 영국 카스트 차별에 관한 연구"(2009)는 라비다시아 등 달리뜨 시크들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카스트 차별 사례들을 고발하고 있다. 영국의 다섯 곳의 구루 라비다스 사원들의 도움으로 200명의 달리뜨에 대한 면담조사를 한 ACDA의 보고서(2009)에 따르면 면담자의 58%는 영국에서 카스트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이 가운데 37%는 카스트 차별을 일상적으로 경험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들 보고서는 영국의 달리뜨 시크가 직장, 교육기관, 보건 영역 등에서 카스트 차별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적시하고 있다. 1998년 '국제 달리뜨 연대네트워크(International Dalit Solidarity Network, IDSNS)'의 영국 지부로 조직된 DSN(UK)는 영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카스트 의식과 차

15) '아드 다르미 운동'은 1920년대 당시 가축 거래로 경제적 부를 축적하게 된 아버지 덕분에 미국 캘리포니아로 국제이주하였던 달리뜨 출신 '만구 램(Mangoo Ram)'이 1925년에 고향에 귀국하여 라비다시아 달리뜨의 지위 향상을 위한 운동을 통해 달리뜨의 새로운 의식형성을 가능하게 했던 도압 지역 최초의 달리뜨 운동이었다(Jodhka 2009).

16) The Ravidassia Community, <https://ravidassia.wordpress.com/list-of-temples>. (accessed on October 13, 2018)

별을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였다. 이들 NGO들은 달리뜨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해 영국의 구루 라비다스 사원을 비롯한 유관 조직들과 함께 카스트 차별 현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김경학 2012, 205-206).

사실 오랜 기간 ‘반 카스트 차별연맹(ACDA)’과 ‘카스트감시영국본부(CasteWatchUK)’ 등 달리뜨 집단을 대표하는 조직들은 영국 내 카스트에 근거한 차별적 행위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는 활동을 해왔다. 반 카스트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2013년에 영국 의회로 하여금 ‘기업 및 규제개혁법안(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Bill)’의 제97장에 카스트 차별에 대한 법률적 금지 도입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실행을 두고 카스트 금지 법안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팽팽한 정치적 로비와 여론전이 그간 뜨겁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 법안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Takha 2018).

시크 사회 내에서 법안 실행을 요구하는 집단은 라비다시아 등 달리뜨들과 반 카스트 운동단체이며, 법안 실행을 반대하는 진영은 자뜨 시크를 포함해 불가촉천민이 아닌 힌두 조직으로서 대표적으로 ‘영국시크위원회(Sikh Council UK)’와 ‘영국힌두조직연맹(Alliance of Hindu Organizations UK)’ 등이다. 실행 반대하는 진영의 논리는 카스트 차별이 영국 시크 사회에 법안으로 제정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정착 국가에서 이주 생활의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영국에서 출생한 세대의 경우 자신의 카스트 정체성이 희박해지 때문에 이를 법안으로 제정할 경우 오히려 모든 인도인에게 카스트의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카스트에 따른 차별이 영구화될 우려가 있음을 강력히 표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입 반대 진영과는 달리 법안 지지 세력들은 카스트에 따른 차별이 극심한 인도를 벗어나 인간의 평등과 인권을 중요시 하는 영국에서조차 시크를 포함한 인도 이주자 집단 내에서 카스트를 토대로 종교 기관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직장생활, 결혼 영역에서도 자뜨 시크와 같은 소위 상위 카스트들의 달리뜨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간 카스트 차별에 관한 법률의 실행을 미루던 영국 정부는 마침내 2018년 8월에 영국 내 인도인 디아스포라 가운데 야기되는 카스트 차별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영국 내 신혼 관례법의 일부로 차별 사건을 다룬다고 결론을 내렸다. 영국 내 카스트 차별로부터 적합한 법률적 보호 장치 실행을 두고 여론을 수렴한 결과였다고 영국 정부는 주장하였지만, 달리뜨 디아스포라는 영국 보수당 정권이 인도인 디아스포라의 다수집단인 상위 카스트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의식한 결정이라 비난하였다. 반면 법률 시행을 반대해 온 상위 카스트들은 자신들의 카스트 정체성에 대해 희박한 의식을 지니고 있는 영국 출생 자녀들이 인권 등에 대해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통해 달리뜨 카스트에 대한 차별이 이민 세대가 깊어질수록 사라질 것이라며 영국 정부의 결정을 두둔하고 나섰다(*Hindustan Times* 2018/07/24).

사실 영국과 북미뿐만 아니라 시크 공동체가 공고화되어 있지 않은 스페인 등 남유럽 등지에서도 자뜨 시크의 라비다시아 달리뜨 집단에 대한 카스트 차별 사례들은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차별이 일어나는 영역은 매우 많지만, 직장생활의 예를 들면 직장 내 자뜨 시크가 달리뜨 시크의 신분을 확인하는 순간 주변 직장 동료들에게 '달리뜨 카스트가 인도에서는 사람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직장 내에서 달리뜨 시크를 괴롭히는 경우가 전형적이다.

캐나다와 영국 등 해외 시크 집단이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민의 역사가 깊어짐에 따라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달리뜨에 대한 상층 카스트의 차별이 점차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가장 비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영역은 자뜨 시크의 결혼을 위한 배우자 결정에서이다. 북미와 유럽에서 이주 1세대에 비해 1.5세대나 2세대의 자뜨 시크들이 카스트를 토대로 달리뜨를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연구(Jaspal & Takhar 2016)도 있지만, 카스트에 따른 격리와 배제가 가장 선명하게 유지되고 있는 영역은 결혼이다. 다시 말해 자뜨 시크와 달리뜨 출신 시크 간 결혼하는 경우는 여전히 거의 없으며, 이민 1세대뿐만 아니라 정착지에서 출생한 2세대 이상의 자녀 세대들의 경우조차도 다른 카스트 간, 특히 자뜨 시크가 달리뜨 시크와의 결혼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Singh 2014). 물론 부모세대에 비해 이주지에서 출생한 이민 2세대 이상의 시크가 공적 기관 등에서 인권과 차별금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는 점을

토대로 이들 세대들이 향후 카스트 차별로부터 거리를 둘 가능성은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카스트 위계를 무시한 결혼, 특히 자프 시크와 달리뜨 배우자를 만나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IV. 라비다시아 달리뜨의 시크교 전통의 문화적 전유와 독자적 정체성 추구

종교기관에서 카스트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후 달리뜨 집단은 우선적으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예배장소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사원을 마련한 이후에도 대부분의 달리뜨 시크 사원, 대표적으로는 구루 라비다스 사원은 종교적 외형과 의례적 절차 등에서 주류 시크 사원의 그것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 독자적 사원을 운영하고 있는 ‘구루 라비다스’의 이름을 따른 사원들은 자신들의 예배당 내에 시크교의 성경으로 여기는 ‘구루 그란티 사합’을 예배당 전면에 배치시키고, 공동식당인 ‘랑가르’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사원 입구 전면 광장에 샤프론 색상의 깃발이 높은 깃대에 휘날리는 등 얼핏 외형상으로는 여느 주류 시크 사원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해 ‘구루 라비다스’ 이름의 사원 내 예배당에서 행해지는 의례 절차, 상징물, 슬로건 등은 외형상 많은 점에서 주류 시크 사원의 것과 유사하다. 특히 외부인인 연구자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라비다스 달리뜨들의 많은 수가 여전히 시크 터번을 착용하고 머리와 수염을 자르지 않았으며, 예배 중 또는 예배를 마치고 구호를 외치는 형식도 주류 시크 사원에서 행해지는 것과 거의 유사했다. 사실 라비다시아 달리뜨의 독자적인 종교 공간에서 보이는 이러한 유사성은 라비다시아 독자적인 종교를 주창하는 지도자들이 시크교 전통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례적 전통을 구성함으로써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시크교의 문화적 전통을 전유(appropriation)하는 것으로 보인다(Ram 2017, 71).

이처럼 구루 라비다스 사원의 의례 형식이나 종교적 배치 등에서 주류

시크 사원의 문화적 전통을 전유하는 것은 명백해 보이나, 구루 라비다스 사원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사원은 자뜨 시크가 중심이 되는 주류 시크 사원과 내용상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여기에는 달리뜨인 라비다시아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류 시크 사원 입구에 휘날리는 높은 깃대 위의 두 개의 칼 모양 문양의 시크 상징인 칸다(khanda) 대신, 구루 라비다스 사원에는 원형에 40개의 태양 빛 문양이 그려진 '하르(har)' 깃발이 펄럭인다. 하르 깃발의 원형 모양의 40개의 빛 문양은 시크 성경 '구루 그란티 사힙' 내에 포함된 40개의 구루 라비다스 찬송을 상징하고, 중앙 원형에 그려진 불꽃은 "모든 세상을 밝힌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한 바깥 원형에는 "너의 이름은 불꽃이며 모든 세상을 밝혔다."는 문장이 새겨져 있다. 인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외 라비다시아들은 구루 라비다스 사원 앞에 '하르' 깃발을 상시로 걸어 놓는 것 외에도, 구루 라비다스 탄생일에 사원을 포함한 인근 일대에서 진행되는 순례행진 차량에도 이 깃발을 부착함으로써 달리뜨로서의 자신들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루 라비다스 사원 입구로부터 내부로 들어오면 예배당으로 이어지는 벽면을 따라 구루 라비다스 사진이 부착되어 있다. 예배당 내부의 중앙 전면에는 여느 시크 사원에서처럼 시크교 성경인 '구루 그란티 사힙'이 놓여 있고, 그 곁에 또는 뒤쪽에 시크교 창시자이자 초대 구루인 구루 나낙 사진과 구루 라비다스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다. 특히 구루 라비다스 탄생일에는 구루 그란티 사힙 내에 포함된 라비다스의 말씀이 특별히 찬송된다. 구루 라비다스 사원에 참석한 라비다시아 달리뜨들은 일요일 오전에 사원에 나와 의례를 지내고 랑가르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친교한다.

이 밖에도 시크 의례에서 집단적으로 찬양하는 기도 구절의 내용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구루 라비다스의 40개 말씀 중 하나가 벽면 액자에 부착되어 있는데, 라비다시아 달리뜨들은 예배 마지막에 이 구절을 함께 외친다. 소위 '정통'이라 주장하는 주류 시크 사원에서는 "진리는 불멸한다.'고 외치는 자에게 축복이 있기를!"이란 구절이 의례 마지막에 복창되는데, 구루 라비다스 사원에서는 "구루 라비다스가 승리한다.'고 외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구절이 복창되는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구절을 라비다시아 시크들이 집단적으로 외치는 것은 라비다시아 시크들의 ‘달리뜨 의식’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표현이 구절 내 포함된 것은 인도에서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달리뜨가 상위 카스트의 손에 억압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정면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려움 없는 강한 의지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뜨 시크들로부터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 구루 라비다스 사원의 ‘달리뜨 의식’의 고양에는 인도 편잡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라비다시아 ‘데라(dera)’의 종교지도자들의 해외 구루 라비다스 사원에 대한 부정기적인 방문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종교 공간을 의미하는 ‘데라’는 주류 시크 사원인 ‘구르드와라’가 모든 시크 구르드와라의 운영을 책임지는 중앙 기구인 ‘구르드와르 중앙위원회’의 칙령에 따른 통제를 받는 것과는 달리, 개별 데라에는 독자적인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의례가 진행된다. 편잡의 도압 지방에는 구루 라비다스를 섬기는 많은 수의 라비다시아인들의 데라가 운영되고 있다. 도압 지역에 속하는 잘란다르 군, 호시아르뿌르 군, 루디아나 군에 위치한 라비다시아의 데라들 가운데 ‘데라 발란’¹⁷⁾ 등 일부 데라 소속 종교지도자들은 해외 구루 라비다스 사원을 방문해 해외 라비다시아들을 향해 ‘카스트 없는 세상 건설’의 메시지를 담은 구루 라비다스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 세계의 라비다시아 달리뜨의 강력한 결속을 촉구하고 있다.

2009년 5월 2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Vienna) 소재 라비다시아 사원인 ‘쉬리 구루 라비다스 구르드와라(Shri Guru Ravidass Gurdwara)’에서 구루 라비다스의 말씀을 전파하던 ‘데라 발란’ 소속 종교 지도자인 ‘산뜨 니란잔 다스(Sant Niranjjan Dass)’와 ‘산뜨 라마 난드(Sant Rama Nand)’를 테러 목표물로 삼은 무장한 인도계 남성들이 사원에 난입하여 참여자들에게 총격을 가했다. 이 사건으로 종교지도자 ‘산뜨 라마 난드’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산뜨 니란잔 다스’를 포함한 15명의 라비다시아 달리뜨 신자가

17) ‘데라 발란’은 잘란다르 군소재지에서 약 13km 떨어져 있는 ‘발란’ 마을에 위치해 있다. 해외 구루 라비다스 사원들을 순회 방문하는 데라 종교 지도자들은 귀국 길에 해외 사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의 후원을 받아 인도 내 가난한 달리뜨를 위해 의료와 교육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중경상을 입었다. 구루 라비다스 사원 측과 인도¹⁸⁾ 및 주요 서방 국가의 구루 라비다스 사원들은 일제히 주류 집단인 자뜨 시크 집단이 자행한 사건으로 추정하고 오스트리아 당국에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독자적인 사원을 운영하는 라비다시아 달리뜨들이 시크교의 정통 의례 방식을 위반한 것을 경고하기 위한 일종의 협박성 공격으로 라비다시아 진영은 해석하였다. 자뜨 시크 강경파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2009년의 테러는 라비다시아 달리뜨 사원에 구루 라비다스 사진을 거는 것 그리고 라비다시아 데라 소속 종교지도자를 구루처럼 섬김으로써 10대 구루 이후 인간 구루가 더이상 없음을 선포한 주류 시크교 전통을 위반한 것에 대한 주류 시크교의 반격으로 이해되었다. 테러 사건 이후 전 세계의 라비다시아 관련 조직들, 특히 영국과 캐나다의 라비다시아 디아스포라 조직은 일제히 시크 강경파의 야만적인 행위를 규탄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라비다시아 달리뜨의 보다 강한 결속과 선명한 정체성 형성을 촉구하였다.

라비다시아 종교지도자에 대한 테러 이후 인도 편잡 '데라 발란'의 지도자들은 2010년 1월 30일에 편잡 잘란다르에서 구루 라비다스를 신봉하는 모든 자들은 스스로를 시크교가 아닌 독자적인 '라비다시아교(*Ravidassia Dharm*: Ravidassia Religion)'를 신봉하는 자들로 선포하였다. 이러한 선언은 구루 라비다스의 탄생지로 알려진 인도 우따르 프라데시(Uttar Pradesh) 바나레스(Banares) 소재 '구루 라비다스 탄생 기념사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언으로 시크교 중앙위원회와 라비다시아 집단과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데라 발란과 관련된 인도 국내외의 구루 라비다스 사원에서 시크교 성경인 '구루 그란티 사합'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고, 구루 라비다스의 말씀만을 모은 '아므리뜨 바니 구루 라비다스(Amrit Bani Guru Ravidass)'만을 사용할 것이라는 데라 발란 조직의 추가적인 발표와 실행으로 한층 심화되었다.

18) 이 사건 직후 달리뜨 라비다시아가 밀집 거주하고 있는 인도 편잡의 잘란다르 군을 비롯한 도합 지역에서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를 공격한 강경 시크집단의 행위에 분노한 라비다시아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공공 기물을 파괴하는 등 일상생활을 완전 마비시켰다. 편잡 주정부는 중앙 정부에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을 요청하고 잘란다르 군을 포함한 인근의 호시아르뿌르 군까지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달리뜨 라비다시아의 독자적인 정체성 선언이 해외 라비다시아에 끼친 영향은 2011년 영국 센서스의 결과에서 쉽게 확인되었다. 2011년 영국 센서스 결과가 출판된 2012년 12월 11일의 자료에 따르면 그간 자신들의 종교를 ‘시크교’로 표기했던 영국의 라비다시아 달리뜨 시크 가운데 무려 1만 1천여 명이 자신의 종교를 시크교가 아닌 ‘라비다시아교’로 표기했다(Takhar 2014, 107). 버밍햄 소재 구루 라비다스 사원에 다니는 라비다시아 달리뜨들은 비엔나에서의 종교지도자 공격은 시크 집단 내 카스트 차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것으로 자신들이 라비다시아라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임을 알려주는 일종의 경종과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구루 라비다스 사원에서 ‘구루 그란티 사합’을 제거하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성경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라비다시아 달리뜨들은 카스트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벗어나려는 자신들의 노력의 하나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라비다시아 정체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였다(Takhar 2014, 110).

사실 해외 모든 지역에서 자뜨 시크가 중심인 시크 집단과 라비다시아 들 간의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자신들의 예배 장소에 시크 사원인 ‘구르드와라’ 명칭을 사용했던 일부 라비다시아 집단은 점차 ‘사바’ 또는 ‘바완’ 등으로 명칭 변경을 꾀하고 있으며, 페이스북(Facebook)과 라비다시아 블로그 등을 이용해 비엔나 사건 발생과 그 이후 전개된 일련의 종교적 조치들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통해 라비다시아 또는 달리뜨 정체성을 고양시키려는 노력들이 나타났다(Singh 2016). 고등학교 졸업 후 1999년도에 캐나다 몬트리올로 이민 와 대학을 졸업하고 몬트리올 컴퓨터 업체에 근무하는 달리뜨인 자스비르 싱(Jasbir Singh, 남, 26)은 2009년 비엔나 테러 사건이 자신의 달리뜨 정체성을 한층 더 선명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아래와 같이 말했다.¹⁹⁾

“이곳에 사는 자뜨 시크들은 자신들이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캐나다 유럽 사람들에게 자랑할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도 없다. 그래서 인도인끼리, 특히 시크교를 믿는 사람들이

19) 2010년 7월 몬트리올에서 자스비르 싱과의 면담.

모인 자리에서 자뜨들은 자신들의 높은 카스트 지위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나도 몬트리올에서 대학을 나와 컴퓨터 전문가로 일하면서 돈도 여유 있게 벌고 내 집에서 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산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편집 잘란다르에 있는 부모님께도 송금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자뜨들보다 내가 못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달리뜨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다. 작년에 일어난 비엔나 테러 사건은 시크교 내에 보장되지 않은 평등한 지위 등 많은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 달리뜨들이 한꺼번에 분노를 폭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비엔나에서 사망한 산뜨 라마 난드는 오래 전에 구루 라비다스가 꿈꾸었던 '베굼뿌라(Begumpura: 슬픔 없는 세계)'라는 평등한 사회질서를 향한 '불멸의 순교자'(필자 강조)가 된 셈이다.”

위의 자스비르 싱은 비엔나 사건으로 희생된 편집 '테라 발란'의 산뜨 라마 난드 종교지도자를 라비다시아 달리뜨의 카스트 차별에 대한 반대를 전파했던 '불멸의 순교자(amar shahid: immortal martyr)'라 칭하고 있다. 사실 비엔나 사건 이후 테라 발란은 공식적으로 희생자 산뜨 라마 난드를 '불멸의 순교자'라고 공표한 바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매년 라비다시아 달리뜨 집단은 주류 시크 사회에서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뜨 라마 난드에 대한 순교자 의례를 행하고 있다. 사실 '순교자 전통'은 시크교의 오래된 전형적인 종교 전통에 해당한다.²⁰⁾ 국내외 라비다시아 달리뜨들은 비엔나에서 희생된 테라 발란의 '산뜨 라마 난드'도 카스트 차별폐지와 평등사회의 이념을 주창하다 주류 시크집단에 의해 희생된 '불멸의 순교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주류 시크교에서 지속되어 온 순교자 숭배 전

20) 시크교가 태동한 이후 10대 구루까지 이어지면서 그 세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5대 구루 아르잔(Arjan, 1563-1606년)은 무갈제국의 자항기르(Jahangir) 황제에 의해 그리고 9대 구루인 테그 바하두르(Teg Bahadur, 1621-1675년)는 무갈제국의 바하두르 샤(Bahadur Sha) 황제에 의해 참수 당하는 등 수난을 겪었는데 이처럼 시크교의 성장 과정에서 희생된 구루들은 '불멸의 순교자'로 간주되어 숭배되고 있다. 1984년 시크 분리주의 운동인 '칼리스탄 운동' 과정 속에서 인도 정부군에 의해 희생된 당시 시크 사회의 영웅인 '빈드란왈레(Bhindranwale)'와 그 일행들도 시크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와 현재 인도뿐만 아니라 해외 시크들로부터 1984년 시크 대학살을 추도하는 행사에서 매년 '불멸의 순교자'로 추앙을 받고 있다(김경학 2008).

통을 달리뜨 시크들이 문화적으로 전유해 자뜨 지배집단에 대한 저항 담론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V. 맺음말

해외 구루 라비다스 이름의 달리뜨 사원 구성원의 달리뜨 의식과 정체성 고양에는 인도 편잡 지역에서 활발히 운영되는 라비다시아 ‘데라’ 종교 지도자의 방문 등 모국 달리뜨 집단과의 긴밀한 초국적 네트워크 유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달리뜨 초국적인 종교 네트워크는 편잡 내 라비다시아의 사원들의 대형화와 이들 사원이 운영하는 부대시설의 신·개축에 해외 라비다시아의 막대한 재정적 후원을 동원할 수 있게 하였다.²¹⁾ 해외에서조차 상층 카스트 시크의 달리뜨 시크에 대한 종교·사회적 맥락에서의 차별적 행위는 달리뜨 디아스포라로 하여금 독자적인 사회·문화적, 종교적인 상징과 전통을 구성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달리뜨,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인 라비다시아 달리뜨들은 해외에서 경제적, 교육·문화적 자본 획득을 통해 자기 정체성과 자존심을 펼칠 수 있는 독자적인 종교·문화적 공간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주류 시크의 일부 의례적 전통을 거부하거나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문화적 전유’를 함으로써 주류 시크와의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다. 출신 카스트 신분에 관계없이 경제·사회적 힘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해외에서 라비다시아 달리뜨들은 별도의 사원을 운영함으로써 사회·문화적인 확고한 자기주장을 위한 종교적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2009년 비엔나 사건은 인도 국내외 라비다시아 달리뜨가 주류 시크와 결별하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종교 및 카스트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게 한 중요한 계기였음에 분명하다. 비엔나 사건 이후 자

21) 이러한 사례의 대표적인 것은 편잡의 ‘데라 발란’이다. 약 2만 명의 신자가 한꺼번에 예배를 보고 약 2천 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공동식당 ‘랑가르’를 갖춘 데라 발란의 대형 사원이 2007년 해외 라비다시아의 후원으로 건축되었다. 이 사원은 200병상 현대식 의료장비를 갖춘 종합병원과 영어로 교육하는 모델 스쿨을 운영하고 있다(김경학 2012).

뜨 시크 중심의 주류 시크집단에 대한 라비다시아 달리뜨의 반감이 격화되었고, 국내외 라비다시아 달리뜨 집단 내에 대안적 성경의 채택과 의례적 절차의 일부 변화 시도를 둘러싼 논박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인도 편잡 소재 시크교 중앙 기구인 '구르드와라 중앙위원회'는 '테라 발란'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일부 테라 종교지도자를 회유해 테라 발란의 선언들, 즉 시크교로부터 이탈과 대안적 성경의 채택과 같은 일련의 종교적 조치들이 전체 라비다시아 달리뜨 조직의 입장이 아님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달리뜨 시크의 이탈이 가져올 시크 집단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시크 주류 집단이 주축이 된 중앙위원회의 이러한 시도는 라비다시아가 대안적 성경을 채택함으로써 시크교의 정체성에 대한 일련의 종교적 도전에 대한 불편함과 라비다시아의 이탈로 그간 중앙위원회로 들어오는 현금 수입의 축소를 우려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거의 모든 해외의 구루 라비다스 사원에는 구루 라비다스 사진을 '구루 그란티 사합' 가까이 이미 배치시키는 등 달리뜨 중심으로 일련의 의례적 절차 등에 변화가 목격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외 구루 라비다스 사원에는 '구루 그란티 사합'을 성경으로 여전히 사용하는 등 이들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절충적인 전략을 따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2011년 미국 뉴욕의 퀸스(Queens)에 위치한 '쉬리 구루 라비다스 템플(Shri Guru Ravidass Temple)'을 현지 조사한 연구(Kaur 2011)에서도 알 수 있다. 퀸스의 구루 라비다스 사원에는 구루 라비다스 사진이 예배당 중앙 벽면에 부착되어 있지만, 구루 라비다스의 말씀만을 묶은 '아프리트 바니 구루 라비다스' 대신 '구루 그란티 사합'이 성경으로 사용되고 있어 아직까지 뉴욕 지역의 주류 시크 집단과의 긴장과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해외에서 운영되는 구루 라비다스 사원들은 인도 편잡에서 활동하는 테라, 특히 테라 발란의 종교적 선언 및 조치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주류 시크교의 입장과 '절충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본국 테라와 종교지도자와의 초국적 관계 속에서 변화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는 라비다시아 달리뜨가 더이상 시크교가 아닌 '라비다시아교(*Ravidassia Dharm*: Ravidassia

religion)’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데라 발란을 위시한 인도 편잡 내 많은 데라들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류 시크교와 ‘거리두기’를 인도 데라들이 강하게 주도할 경우 해외 구루 라비다스 사원들의 입장도 더욱 독립 종교적 움직임 쪽으로 흐를 개연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시크교가 15세기에 태동하여 독립 종교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많은 시크 구루들은 시크교를 힌두교 및 이슬람교와 구별하기 위해 일련의 의례적 조치들을²²⁾ 동원하면서 “우리는 힌두도, 무슬림도 아니다.”고 선언했다. 이제 편잡 내 라비다시아 데라 종교지도자들이 “라비다시아 달리뜨는 힌두도, 시크도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해외 라비다시아 달리뜨 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외 구루 라비다스 사원의 달리뜨들이 자신들의 선명한 독자적인 카스트와 종교적 정체성 구성을 위한 시도를 하면서도 ‘구루 그란티 사힙’을 주요 성경으로 사용하는 등 주류 시크교와의 본격적인 갈등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외 구루 라비다스 사원을 중심으로 하는 라비다시아의 종교와 카스트 정체성 구성의 향후 진행 과정에 세심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2) 10대 구루 고빈드 싱(1666-1708년)은 힌두의 화신(*avatar*) 개념, 카스트제도 등의 부적절함을 지적함으로써 시크와 힌두와의 구분을 짓고, 할랄(*halal*)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고 여성의 얼굴을 가리는 관습을 중지시켜 시크와 무슬림과 구분 짓고자 했다. 19세기 말 시크 신앙 정화운동을 하던 기관인 ‘싱 사바(Singh Sabha)’는 일부 힌두 관습을 따르는 시크가 적지 않아 시크교에서 힌두 흔적을 없애는 노력을 하였다(김경학 2008, 18-25).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김경학 (2008). 『터번의 문화정치: 시크의 초국가적 민족주의』. 전남대학교출판부.
- _____ (2012). 『글로벌 시대의 인도사회: 초국가주의, 디아스포라, 인권』. 전남대학교출판부.
- Grewal, J. S. (1972). "Toynbee's Interpretation of Sikh History." *From Guru Nanak to Maharaja Ranjit Singh: Essays in Sikh History*. Amritsar: Guru Nanak University Press.
- _____ (1990). *The Sikhs of the Punjab*.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cobsen, K. A. and K. Myrvold (2011). *Sikhs in Europe: Migrations, Identity and Representation*. Farnham: Ashgate.
- Jaspal, R. and O. P. Takhar (2016). "Caste and Identity among British Sikhs in the Midlands." *Sikh Formations*. Vol. 12. No. 1, pp. 1-16.
- Jodhka, S. S. (2009). "The Ravi Dass of Punjab: Global Contours of Caste and Religious Strife."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13, pp. 78-85.
- Kaur, M. (2011). "Politics of Discrimination: Study of Caste against Ravidasi Sikhs in the Diaspora." M. A. Diss., Columbi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rt & Sciences.
- Kessinger, T. G. (1974). *Vilyatpur 1848-1968: Social and Economic Change in a North Indian Vill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umar V. (2004). "Understanding Dalit Diaspora."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39. No. 1, pp. 114-116.
- Leonard, K. (1992). *Making Ethnic Choices: California's Punjabi-Mexican-American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Lum, K. (2010). "The Ravidassia Community and Identity(ies) in Catalonia, Spain." *Sikh Formations*. Vol. 6. No. 1, pp. 31-49.
- McLeod, W. H. (1975). *The Evolution of Sikh Community: Five Essays*.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89). *Punjabis in New Zealand: A History of Punjabi Migration 1890-1940*. Amritsar: Guru Nanak Dev University.
- Nesbitt, E. (1995). "Punjabis in Britain: Cultural History and Cultural Choices." *South Asia Research*. Vol. 15, No. 2, pp. 221-240.

- Ram, R. (2012). "Beyond Conversion and Sanskritisation: Articulating an Alternative Dalit Agenda in East Punjab." *Modern Asian Studies*. Vol. 46. No. 3, pp. 639-702.
- _____. (2017). "The genealogy of a dalit faith: The Ravidassia Dharm and caste conflicts in contemporary Punjab." *Contributions to Indian Sociology*. Vol. 51. No. 1, pp. 52-78.
- Singh, A. (2014). "Caste and Marriage among the Sikhs of Southern California: Observations from a Statistical Analysis." *Sikh Formations*. Vol. 10. No. 3, pp. 393-423.
- Singh, M. (2012). "Preference for Migrant Agricultural Labour in Punjab."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47. No. 29, pp. 27-28.
- Singh, S. (2016). "Dalits in Punjab: Cultural Assertion and Heritage Reconstruction." *South Asia Research*. Vol. 36. No. 3, pp. 356-376.
- Takhar, O. K. (2014). "The Place of Scripture in the Trajectories of a Distinct Religious Identity among Ravidassias in Britain: Guru Granth Sahib or Amritbani Guru Ravidass." *Journal of Contemporary Religion*. Vol. 29. No. 1, pp. 105-120.
- _____. (2018). "Social and Political Activism among British Sikhs: Responses to Issues of Equality and Human Rights-A New Way Forward." *Sikh Formations*. Vol. 14. No. 1, pp. 1-15.
- Tatla, D. S. (2004). "Rural Roots of the Sikh Diaspora." Ian Talbot and Shinder Thandi (eds.). *People on the Move: Punjabi Colonial, and Post-Colonial Mig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45-58.
- _____. (2014). "The Sikh Diaspora." P. Singh and L. E. Fenech (eds.). *The Oxford Handbook of Sikh Stud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495-511.

2. 기타

- Anti Caste Discrimination Alliance (2009). *Hidden Apartheid: Voice of the Community Caste and Caste Discrimination in the UK. A Scoping Study*. England: David Richards Associations.
- Dalit Solidarity Network (UK) (2006). *No Escape: Caste Discrimination in the UK*. Dalit Solidarity Network UK Report.

Singh, G., Simon, C. and D. S. Tatla. (2012). *New Forms of Religious Transnationalism and Development Initiatives: A case Study of Dera Sant Sarwan Dass, Ballan, Punjab, India*. Revised Working Paper. International Development Department. University of Birmingham, pp. 53-2012.

Sonwalkar, P. "UK government decides not to enact law on caste discrimination among Indians, community divided." *Hindustan Times*. Jul. 24, 2018.

The Ravidassia Community. <https://ravidassia.wordpress.com/list-of-temples/>. (accessed on October 13, 2018)

| 논문투고일 : 2018년 11월 12일 |

| 논문심사일 : 2018년 11월 21일 |

| 게재확정일 : 2018년 12월 06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5 No. 4 (2018)

The Discrimination against Dalit Caste among Overseas Indian Communitie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Sikh Diaspora

Kim, Kyunghak

(Dept. of Anthrop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ast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the Indian context have persisted despite of the many reform movements that have spoken out against its discriminatory element. Moreover, the discriminations based on caste have been observed in the context of Indian diaspora.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processes of a distinct socio-religious identity among the overseas dalit Sikhs called 'Ravidassia' diaspora, especially with references to Ravidassia in Canada and UK. In fact, many of Ravidassia diaspora have experienced caste-based discriminations from the high caste Sikhs, namely Jat sikhs who have dominated the material and religious worlds of sikh society for long time in India. 2009 Vienna killings, in which the most important Sant (religious leader) of Ravidassia was killed, has acted as a catalyst of current tensions between mainstream Sikh community and Ravidassia group revolving around replacing of the 'Guru Granthi Sahib' with 'the Amritbani Guru Ravidass' in the Ravidassia places of worship both in India and abroad.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a distinct identity formation of overseas Ravidassia communities is an ongoing process. It is more likely that Ravidassia diasporas have socio-cultural autonomy from mainstream Sikhism with the passage of time.

- Key words: Sikh Diaspora, Caste Discrimination, Dalit, Ravidassia, *Guru Ravidass Temple, Jat Sikhs*